

방통위 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

- 「한-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」 가서명 및 공동제작 협력강화 -

◆ 기 간 : 2023. 12. 10. (일) ~ 12. 15. (금), 4박 6일

◆ 방문국가 : 캐나다(오타와, 토론토)

2023. 12.



방송통신위원회

1. 출장 목적

- 「한-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」 문안 합의에 따른 가서명 추진 및 캐나다 미디어펀드(Canada Media Fund) 등 관련 기관 면담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

※ 조약체결 절차: 가서명 > 법제처 심사 > 국무회의 > 대통령재가 > 조약체결 서명 > 공포

2. 출장 국가 : 캐나다(오타와, 토론토)

3. 출장 기간 : '23년 12월 10일(일) ~ 15일(금), 4박 6일

4. 출장자

구분	부서	직위(직급)	성명
1	기획조정관	국제협력담당관 과장(서기관)	김영주
2		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	황덕조
3		국제협력담당관 주무관	정상진

※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 주성희 연구책임자, 노은정 연구원, 김지은 통역사 동행

5. 주요 활동

- 「한-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」협정문안 가서명을 통해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,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절차 시작기반 마련
- 캐나다 미디어제작자협회, 미디어펀드, 온타리오 크리에이츠 등 공동제작 관련 기관 면담을 통한 교류협력 증진 및 강화

6. 선물수령 관련

- 선물 수령 여부 : 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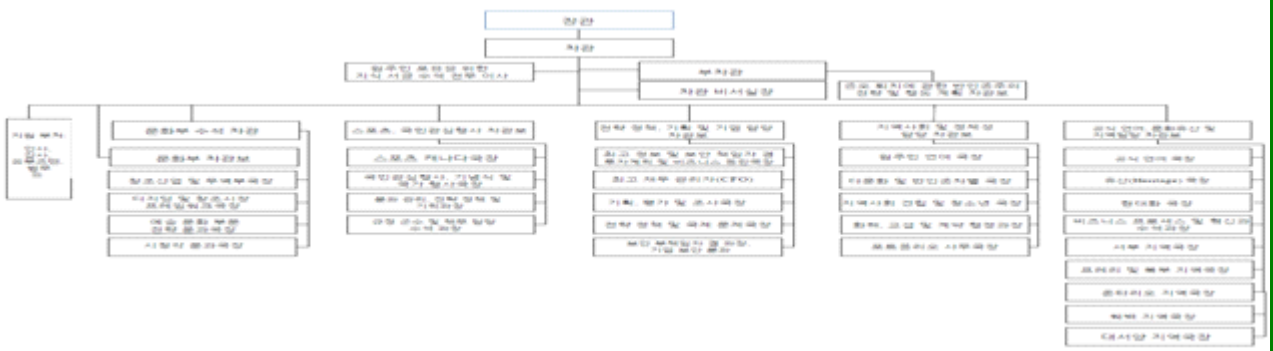
1. 「한-캐 시청각 공동제작협정」 가서명 및 후속조치 논의

1 「한-캐 시청각 공동제작협정」 가서명 개요

- 일 시 : 2023년 12월 11일(월) 10시
- 장 소 : 캐나다 문화유산부 회의실(오타와)
- 참 석 자
 - 정부대표단: 김영주 과장, 황덕조 사무관, 정상진 주무관
 -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: 주성희 연구위원, 노은정 전문연구원
 - 캐나다 문화유산부: Jocelyn Girard 과장, Ian Wallace 매니저, Christina Bing 정책 분석가, Adnan HADZIMAHOVIC 정책 분석가, Mathieu LORRAIN 매니저, Anne MALÉPART 매니저, Julie PROULX 매니저
 - 텔레필름 : Julie BLONDIN 과장, Camille GUEYMARD 사무관

〈 문화유산부 (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) 개요 〉

- o (성격) 문화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해 스포츠를 포함, 문화 콘텐츠 전반에 관한 진흥정책, 관련 법령 수립과 집행담당 공동제작협정 체결 권한당국
- o (주요업무) 1996년 '캐나다 문화 유산부법(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Act)'에 의거해 설립. 방송법, 저작권법, 캐나다 투자법, 공식 언어법, 박물관법, 문화재 수출입법, 예술가 지위법, 캐나다 다문화주의법 체육 및 스포츠법 등의 법령 관장. 이외 예술, 문화, 유산, 공식 언어, 스포츠, 국가 의식 및 의전, 캐나다 상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
- o (조직도)



2 최종협상 및 후속조치 논의 등 면담진행

□ 주요 면담내용

【 한-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최종협상 및 국내절차설명 】

- 양국 간 영상회의 결과를 반영한 클린버전에 대한 최종협상진행
 - 가서명 후 외교부 법적 검토 등 한국/캐나다 국내 절차 개시 예정
 - ※가서명→외교부를 통한 법제처 심사→국무회의→대통령 재가→최종서명(전권위임)→공포
 - (캐나다 측) 최종서명을 위해 확정된 협정문안을 3개 언어로 작성하여, 캐나다 내각으로부터 전권위임을 받아 최종서명 진행(6개월 소요)
 - (우리 측) 방통위에서 외교부와 함께 국내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서명예정(4개월 소요)

【 한-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후속조치 논의 】

- 양국 방송 제작자들이 협정에 대한 기대가 크며 한국과의 교류 수요가 높기에,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협정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자 함
 - 국내제작물 인정은 가장 큰 혜택이며,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이 부여됨
 - ※ 한국: 국내제작물 인정위원회를 통해 심사, 제작비지원(방발기본법) 및 세액공제(콘텐츠진흥법)
 - ※ 캐나다: 텔레필름(주무부처) 검토 후 문화유산부 및 CAVCO(문화유산부 산하조직)을 통해 승인 및 혜택부여

【 한-캐나다 양국 방송정책 논의 및 공유 】

- (캐나다) 현재 진행 중인,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들에게 콘텐츠를 지원하고 캐나다 콘텐츠의 선택가능성을 높이는, Bill C-11(일명 온라인 스트리밍 법안)의 진행상황 및 관련 업계반응 논의
 - 제작자 방송사 지원 증대 및 다양성 도모, 방송 규제자들에게 행정력 패널티 권한에 있어 큰 틀을 제공하는 것이 법안요지임

- 방송사는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 및 SNS 등 새로운 미디어와 규제 등에서 공평한 시장을 요구(소셜미디어와 같은 완화된 의무)
 - ※ 예시: 음악의 경우 유튜브뮤직에만 스트리밍될 때와 달리, 라디오에도 방송되면 규제대상이 됨
- 정부는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
- 캐나다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업자는 규제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,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 할지 세칙을 정하고 있음
- (한국) OTT점유율이 높지만, 글로벌 OTT가 미디어 관련법으로 규제되지 않고,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리되어있어 의무 및 규제로부터 자유로움
- 선도적인 방안에 대해 한국도 다양한 논의를 거쳐 법·제도적 정비 방안을 검토 중임

【 한-캐나다 문화교류의 해 MOU 및 업데이트 상황 설명 】

- o 한-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교류 증진을 위해 2024-2025년을 문화교류의 해로 정하여 문체부와 함께 MOU를 진행 중
 - 텔레필름의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등 주한캐나다대사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임
 - 방통위도 내년에 다양한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양국 제작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음

< 캐나다 문화유산부 면담 및 가서명식 >



< 면담 사진 >

< 가서명식 사진 >

< 기념 사진 >

2. 오타와 한국문화원 방문 및 면담

- 일시 / 장소: '23. 12. 11.(월) 15:00 ~ 17:00, 한국문화원 회의실
- 면담자 : 이성은 한국문화원장

〈 오타와 한국문화원 개요 〉

- 설립: 2016년 9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의 소속기관으로 설립
- 성격: 전시회와 공연행사, 영화상영과 문화축제, 문화강좌와 한국어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문화활동 주관지원
- 주요업무: 전시, 영화 상영, 공연 및 행사, 차세대 프로그램, K-아카데미, 한국어, 한식 등 프로그램 진행, 한-캐나다 수교 60주년 맞이 행사진행. 한-캐나다 합동 클래식 공연, 국립무용단 공연 및 트레블링 코리안 아츠 <경계협상-오타와> 전시 개최 등

□ 주요 면담 내용

- 현지 한류 현황 및 방송한류 지원 현황과 건의사항 청취
 - 올해는 한-캐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고위급 교류 등이 활발 하겠으며,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 - 한국문화원 및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한류 관련 행사에도 우호적임
- 캐나다 방송현황 및 공동제작 활성화 논의
 - 캐나다는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, 캐나다만의 문화 발굴을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정부의 지원 등 많은 노력 중
 - 퀘백에서 촬영한 한국 드라마 <도깨비>를 퀘백정부가 큰 성공사례로 홍보하기도 하였으며, 앞으로 한국과의 공동제작에 대한 기대가 큼

3. 캐나다 미디어제작자협회(CMPA) 방문 및 면담

□ 일시 / 장소 : '23. 12. 12.(화), 15:00~16:30, 미디어제작자협회 회의실

□ 면담자

- 캐나다 미디어제작자협회(CMPA): Lisa Broadfoot 산업/비즈니스부분 부회장, Sarolta Csete 과장, Liz Shorten 최고운영책임자
- 기타 배석: (Scythia Films)Daniel Bekerman 프로듀서, (Sunday Baby Films.Inc)Lisa Michelle Cornelius 프로듀서/배우, (Rhombus Media) Niv Fichman 설립자/대표, (Gloryous Productions) Gloria Ui Young KIM 프로듀서/감독, (First Generation Media) Emily Kulasa 비즈니스 부분 부사장, (Timelapse Pictures) Albert Shin 대표

< 캐나다 미디어제작자협회 개요 >

- 명 칭: 캐나다 미디어제작자협회(Canadian Media Producers Association)
- 설립년도: 1948년 (최초 비영리 협회인 캐나다 영화 제작자 및 연구소 협회(AMPPLC))
- 성 격: 독립제작사를 위한 전국 규모의 협회로, 텔레비전·영화 및 디지털 미디어 채널용 영어 콘텐츠의 개발·제작 및 배포에 종사하는 수백 개 회사를 대표
- CMPA의 주요 업무
 - 회원사 제작 콘텐츠 홍보를 통해 캐나다 미디어산업의 문화적,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
 - 방송, 저작권 등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연방 및 주 정부에 회원사를 대표하여 활동
 - 주요 노조 및 길드와 노동협약을 협상하고, 회원사의 관련 협약 지원
 - 캐나다 차세대 프로듀서들의 커리어 육성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
 -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컨퍼런스인 Prime Time을 개최, 업계참가자들 연결
 - 연간 경제 보고서 "Profile"과 "Indiescreen" 잡지 등 간행물 제작

□ 주요 면담 내용

【 미디어제작자협회의 국제공동제작 사례 및 의견청취 】

- 한-캐나다 방송제작 교류 경험과 애로사항 청취
 - 양 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실제 제작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
 - 협상 체결 전에는 제작물이 영화제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지만, 양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
 - 캐나다에서 제작지원 받으려면 장르에 상관없이 주요 영화제에서 초대될 수 있는 수준의 예술적 요소가 필요함
 - 한국 이민자들이 많은 여건을 고려하여 <Riceboy Sleeps>가 부분적 한국 로케이션으로 제작되었으며, 텔레필름이 지원할만한 영화임

【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정책 논의 및 공유 】

- 온라인 스트리밍 법안(Bill C-11)의 업계반응 논의
 - 대부분 독립제작자로 구성되어있는 캐나다 환경 특성 상, OTT 규제가 캐나다 자체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에, 규제를 환영하는 입장임
 - 캐나다에서 제작지원을 받는 경우 캐나다에서 제작비를 지출해야한다는 규정도 자체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

【 한-캐나다 공동제작 희망 분야 및 기대 】

- 한국과 공동제작 희망 분야 및 협정 체결에 따른 업계 기대
 - 공동제작협정으로 인정받은 공식 제작물은 양국의 자국물로 인정

받기에, 외국물 편성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-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작지원사업의 경우, 콘텐츠진흥법에서 20% 세제지원하며, 한국 파트너가 신청해야함
- 공동제작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, 모든 것을 한 쌍으로 만들어야해서 다른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제작비가 요구됨
- 현재는 제작비지원(5억) 및 20% 세액지원도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 비해 낮은 편이나, 추후 공동제작 콘텐츠 활성화 정책 등을 기대함

< 캐나다 미디어 제작자협회 면담 >



< 면담 사진 >



< 기념 사진 >

4. 캐나다 미디어 펀드(CMF) 방문 및 면담

- 일시 / 장소 : '23. 12. 13.(수), 10:00~12:00, 캐나다미디어펀드 회의실
- 면담자 : CMF Rod Butler 부사장

〈 캐나다 미디어 펀드(Canada Media Fund) 개요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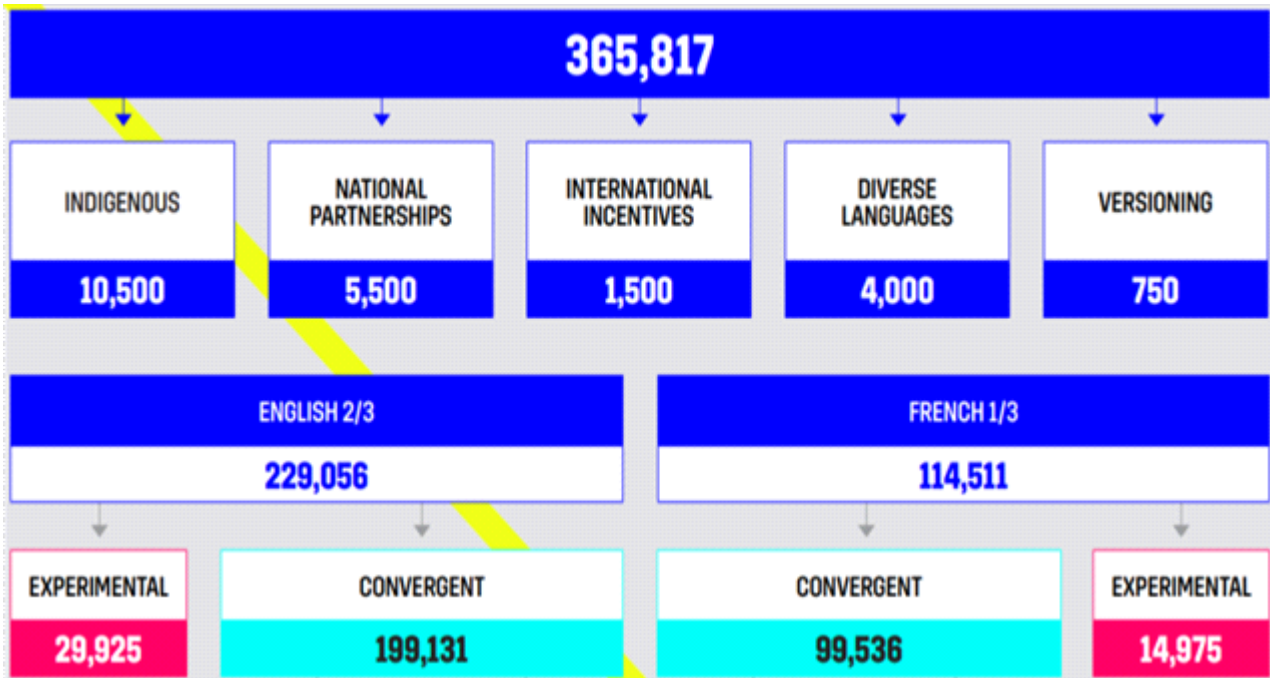
- 개요: 캐나다 내 시청각 미디어 제작 지원 기금 운영 비영리 단체
- 주요업무: 아래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TV 및 디지털 미디어 산업지원금 제공
 - 실험 프로그램(Experimental Stream): 혁신적 대화형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장려
 - 융합 프로그램(Convergent Stream): 캐나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TV 및 디지털 미디어 융합 콘텐츠의 창작 지원

□ 주요 면담 내용

【 캐나다 미디어 펀드의 역할 】

- 캐나다 미디어 펀드는 공기업 텔레필름의 공공민간파트너십(PPP: Public-Private Partnership)기관으로, 연방/케이블 위성방송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
 - 지원 콘텐츠를 심사하는 방식은, 국제심사위원회를 거쳐 콘텐츠 기준 심사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, CRTC(방송규제기관)에서 라이선스를 허가한 방송사에 자동으로 주는 경우도 있음
 - 캐나다 자체 콘텐츠를 캐나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펀드의 목적이며, 성과지표를 시청률 기반으로 측정해 왔으나,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대중화 되면서 시청률 기반의 통계작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임
 - 전체 지원 콘텐츠의 2/3이 영어 콘텐츠이고 1/3이 불어 콘텐츠임

<2023-2024 제작지원 총 3억 6,581.7만 달러 (=약 4,790억원)>



※ 2022-2023년: 1,334개 프로젝트, 총 3억 6,580만 달러 지원

* (제작지원 추이) 2021-2022년: 3억 6,610만 달러, 2022-2023년: 3억 6,580만 달러

【 조약/비조약 공동제작에 대한 지원 차이 】

-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며, 융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가지(드라마, 버라이어티, 다큐멘터리, 아동용) 장르를 지원
 - 다양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투명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항소가 가능함(다큐멘터리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절반이상임)
- 캐나다 정부는 독일, 프랑스, 아일랜드, 남미, 뉴질랜드 등과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며, 정부차원에서 진행된 MOU와 별도로 캐나다 미디어 펀드는 2014년부터 매년 다양한 국가와 5~6개 MOU를 체결하여 25~30여개 프로젝트를 진행함
 - 캐나다 미디어펀드로부터 제작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작자가 캐나다 방송사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며, 할리우드에서 IP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작지원을 받기 어려움

- 공공기금의 성격상 타국 콘텐츠에는 지원하지 않으나, 공동제작협정 프로그램의 경우 자국물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음

【 정부 지원을 받은 콘텐츠의 성과 관리 방안 등 논의 】

- o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에 대해 제작지원 결정된 후 1차로 예산의 60%를 지급하고, 추후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야 잔액 지급
 - 무작위로 감사를 진행하여 인건비 미지급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자들은 별도 관리, 또한 방송사도 제3자로서 개입되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함
 - 캐나다 미디어펀드를 통해 지원한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관리하며, 다양한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평가하고 수상내역을 추적하는 등 관리
 - 지원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연속으로 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, 제작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제작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

< 캐나다 미디어 펀드 면담 >



< 기념 사진 >

< 면담 사진 >

5. 온타리오 크리에이츠 방문 및 면담

- 일시 / 장소 : '23. 12. 13.(수), 15:00~17:00, 온타리오 크리에이츠 회의실
- 면담자: Karen Thorne-Stone 대표, Jennifer Blitz 과장, Erin Creasey 과장, Rachel Arlene-Singh 주무관

< 온타리오 크리에이츠(Ontario Creates) 개요 >

- 성격 : 온타리오 주 창조산업에 대한 경제 개발, 투자 및 협력 촉진을 담당하는 주정부기관(Provincial government agency)
- 주요 업무
 - 음악, 책, 잡지, 영화, 텔레비전,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분야를 포함하는 창조 산업 분야에 대한 개발, 투자 및 협력 지원
 - 온타리오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등 투자
 - 영상관련 세액 공제 프로그램으로 온타리오 영화, 텔레비전 세금혜택(OFTTC), 제작 서비스 세금혜택(OPSTC), 컴퓨터 애니메이션 및 특수효과 세금혜택(OCASE),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세금 공제(Ontario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) 등이 있음

□ 주요 면담 내용

【 사업 및 제작지원 추진현황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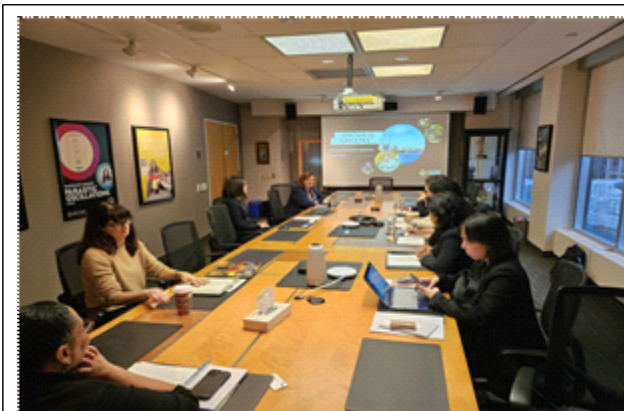
- 잡지, 음악, 영화, 티비 등 크리에이티브 창조 경제 발전 기구로 책무가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공공기관임
 - 정부로부터 대부분 기금을 조성하며,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다양한 기관들과 국제협력을 추진함
- 온타리오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자들의 성장을 도모하고, 역량을 강화하여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

-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며, 그들에게 시장 트렌드 분석 등의 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청층 확보 위해 도움
- 책, 음악, 영화, TV, 게임 등 대부분의 장르를 지원하나, 연극 등의 예술은 지원하지 않으며, 해당내용은 법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

【 온타리오 크리에이츠의 콘텐츠 제작지원 경험 공유 】

- 프로젝트 심사 시, 온타리오 제작자들의 창조성과 혁신성을 상업적 성공성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며, 다양성을 반영하는지 등을 검토
 - 지원범위는 실제 제작에 대한 부분을 넘어 후속적인 마케팅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, 지원프로젝트가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진출한 바 있음
 -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거나, 국제영화제 등 산업 역량 강화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을 기획
 - 프로그램의 경우 캐나다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, 온타리오 일자리 창출 기여가 중요하며, 한-캐 공동제작협정 체결이후 한국과의 공동제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할 예정임
- 온타리오의 다양한 영화 유치를 위해 투자 중이며, 2022년 3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였음(45,000개의 일자리 창출, 50개 이상의 제작사 운영, 한 해 400여개의 프로젝트 진행 등)

< 온타리오 크리에이츠 면담 >



< 면담 사진 >



< 기념 사진 >